

## 제11차 APEC 정상회의 참석 및 싱가포르 국민방문 귀국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와 싱가포르 국민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PEC 21개 회원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번 정상회의는 아·태 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가속화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 촉진, 회원국 국민의 안보 보장 등을 담은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에 기초한 방콕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초국가적인 테러집단의 해체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따른 안보위협을 함께 해소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다자무역체제가 세계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APEC 정상들은 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중국·일본·러시아 3개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2차 6자 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방콕에 도착한 직후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7월에 합의한 양국의 '10대 협력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앞으로 5년 안에 교역규모 1천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안에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2005년까지 실질적인 교섭을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국이 실질적인 문안에 합의한 '한·일 사회보장조약'을 조기에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사회보장세의 이중납부가 방지되어 두 나라간의 경제활동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한·일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의 비자 면제, 김포~하네다간 항공운항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두 나라가 한층 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1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간 실질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두 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우리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남북한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 밖에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APEC 자문위원들과 미국 기업인들을 비롯한 많은 경제인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경제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싱가포르를 국민방문했습니다. 고숙동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간 FTA 추진을 위한 공식협상을 내년 초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또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IT·생명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물류·교통·금융·관광의 허브입니다. 동남아 경제중심인 싱가포르와의 경제협력 확대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순방의 외교적 성과를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여 주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